

2010년 신년호부터 전기관련 중소기업 업체들의 신제품 소개 및 신기술 동향을 시리즈로 게재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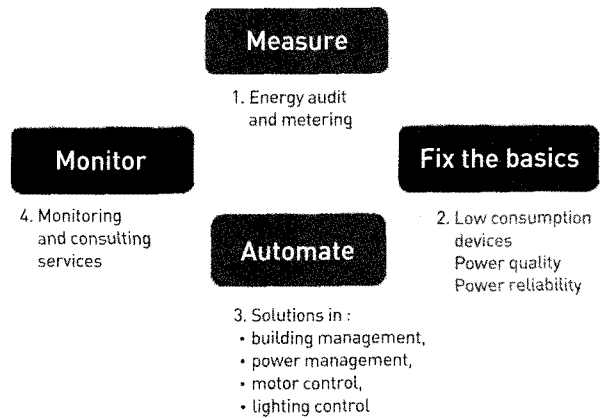
에코스트럭처(EcoStruxure™)



세계최대 에너지 관리 전문기업 슈나이더일렉트릭(한국 지사장 에릭 리제, www.schneider-electric.co.kr)은 모든 산업분야에 적용 가능한 에코-스트럭처(EcoStruxure™)를 공개하고 통합 에너지 관리 솔루션 전문기업으로 나아가기 위한 청사진을 제시했다.

에코-스트럭처는 기존 인프라-스트럭처 중심의 산업 구조를 대체하는 친환경 아키텍처를 바탕으로 한 통합 솔루션이다. 슈나이더일렉트릭은 에너지 관리 분야에서 보유한 독보적인 기술력을 바탕으로 기업의 에너지 낭비와 비효율을 획기적으로 줄이는 솔루션을 제공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기업의 친환경 목표 달성을 도와 저탄소 녹색성장의 중심 기업으로 자리매김 한다는 전략이다.

에코-스트럭처는 주택, 빌딩, 공장, 데이터센터, 선박, 발전소, 병원, 호텔 등 모든 산업 분야의 에너지 관리에 적용 가능하며 전통의 전력 및 제어 성능과 결합한 빌딩 오토메이션 및 보안, 설치 시스템 및 제어, 전력 모니터링 및 제어, 고 신뢰도의 전력 공급 및 냉각 서비스 등의 첨단 비즈니스를 통합 솔루션의 형태로 제공한다. 이를 통해 고객이 비용을 절감하고, 항상 연결된 상태를 유지하며, 안전하고 중단 없는 청정 전력 공급을 활용하도록 지원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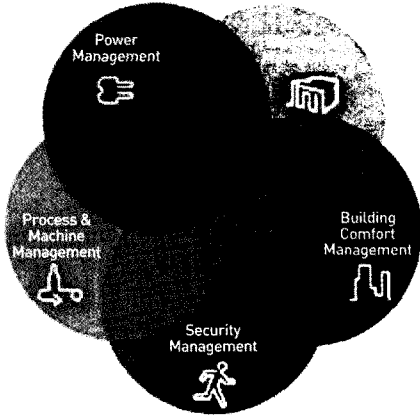


슈나이더일렉트릭이 밝힌 에코-스트럭처의 두 가지 핵심 원리는 ▲각 분야에 특화된 다양한 포트폴리오의 구축과 ▲통합 관리를 통한 시너지의 창출이다. 슈나이더일렉트릭은 전세계 전력제어, 데이터센터, 산업자동화, 빌딩제어, 물리적 보안 분야에서 높은 효율성과 안정성을 인정받은 제품을 활용해 최상의 통합 솔루션을 구현할 수 있다. 기업은 슈나이더일렉트릭의 에코-스트럭처 솔루션을 이용하면 각각 별도의 솔루션을 구축할 때 보다 더 높은 에너지 효율을 달성할 수 있다.

슈나이더일렉트릭코리아 에릭 리제 사장은 “에코-스트럭처는 주택, 빌딩, 에너지 및 인프라는 물론 데이터 및 네트워크까지 에너지가 투입되는 모든 산업을 포괄하는 에너지 관리 신개념”이라며 “국내에서도 데이터센터, 빌딩, 조선, 수자원, 가스/오일 분야 등에 더 효율적인 에너지 관리 시스템을 제공해 기업들이 친환경적인 에코 기반의 인프라를

구축해 에너지 효율성을 구현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Schneider Electric은 다양한 산업군에서 에너지의 안전성, 신뢰성, 효율성, 생산성을 향상하는 혁신적인 통합 솔루션을 제공하는 세계 최대 에너지 관리 전문기업이다.



1836년에 설립된 슈나이더 일렉트릭은 19세기 철강, 중장비, 조선 사업을 이끌어 왔으며 20세기에 들어와서는 나아가 전력 배전 분야와 자동화 및 제어 분야까지 확장, 주력하기 시작했다. 21세기에 들어서는 배선과 자동화 등을 통한 에너지 관리뿐만 아니라 저탄소 녹색성장까지 아우르는 통합적인 에너지 관리 솔루션을 통하여 공장으로부터 가정에 이르기까지 정전 없이 적은 에너지를 소비하면서 에너지의 안전성, 신뢰성, 효율성, 생산성을 높이는 데 주력하고 있다.

에너지 관리 전문기업인 슈나이더 일렉트릭은 최근 120여개의 기업을 인수했다. APC(데이터센터 관리), 프로페이스(산업용 인터페이스), Clipsal(조명제어), TAC(빌딩제어), Pelco(감시용 비디오 카메라), Xantrex(전력관리), 머린저린(전력배전), 텔레메카닉(제어기), 삼화 EOCR(전자식보호계전기), 아레바T&D(전력송배전) 등 에너지 관리와 관련된 모든 솔루션을 확보하고 수직계열화를 이룸으로써 에너지 분야 최고의 통합 솔루션 기업으로 리더십을 확고히 하고 있다.

이밖에 슈나이더 일렉트릭은 전 세계적으로 전기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안전하고 깨끗한 전기를 공급하는 지속 가능한 프로그램 개발에도 힘쓰고 있다. 에너지 생산성 향상과 더불어 누구나 쉽게 이용할 수 있고 기후 변화 문제에 대처하는 최적의 에너지 관리 솔루션 제공이라는 사명 하에 세계 곳곳에서 빈곤층 에너지 제공사업 및 에너지 관련 직업 교육을 통한 취업 지원 사업을 펼치고 있다.

슈나이더 일렉트릭은 100개 국가에서 114,000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으며, 2009년 158억 유로(한화 약 25조원)의 매출을 달성하였다. KEA

EcoStruxure

